

러시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5. 10.

I. 일반개황	1
II. 경제동향	2
III. 정치·사회동향	8
IV. 국제신인도	11
V. 종합의견	13

I. 일반개황

면적	17,098 천 km ²	G D P	1조 8500억 달러 ('14)
인구	1억 4230만 명 ('14)	1인당 GDP	12,991 달러 ('14)
정치체제	대통령중심제(연방공화제)	통화단위	Russian Ruble(RUB)
대외정책	동북아시아 국가 및 신흥국들과의 협력 정책	환율(달러당)	38.38 ('14)

- 러시아는 세계 최대 면적의 영토를 보유한 국가로, 2014년 말 기준으로 세계 2위의 가스 생산국, 3위의 원유 생산국이자, 세계 1위의 가스 수출국, 2위의 원유 수출국으로 세계 에너지시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.
- 최근 유가 하락, 2014년 3월의 크림반도 사태 이후, 미국과 EU 등 서방의 대러 제재로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나, 중국 주도의 AIIB에 가입하고 중국, 브라질과 BRICs 개발은행(NDB, New Development Bank) 설립에 합의하는 등 주요 신흥국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음.
- 극동러시아 지역에 한국·중국·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투자 유치를 통해 산업 발전과 운송, 항만 인프라 건설을 위한 목적으로 선도 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등 경제특구를 추진하고 있음.

II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□ 급격한 경제성장률 하락

- 2011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으며, 올해에는 에너지 가격의 하락에 따라 3.4%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- 국제유가는 이란 핵협상 타결에 따른 과잉 공급, 중국 경기침체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 등으로 당분간 약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, 이는 러시아 경제성장률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.
- 러시아 경제성장률 하락에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.
- 과도한 에너지 의존 극복을 위한 경제현대화, 산업다변화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,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의 제재, 세계 원자재 시장에서의 자원가격의 하락 등도 경제성장에 악영향 요인임.

□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확대 전망

- 세출이 10%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비해 세입은 감소하여 재정수지 적자폭이 확대됨.
- 재정수지 적자폭은 2014년 GDP의 0.5%에서 2015년에는 3.6%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.
- 크림 반도의 러시아 편입으로 이 지역에 대한 재정지출 수요가 높은 반면, 주요한 재정수입원인 에너지 기업의 수익 악화로 재정수지 적자가 커지고 있음.

□ 인플레이션을 큰 폭으로 상승
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4년에는 7.8%를 기록했으며, 2015년에는 루블화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14.5%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.

- 3월 이후 월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조금씩 둔화되고 있음.
- 루블화 환율은 달러당 34루블(2014.7)에서 69루블(2015.2)로 상승하였고, 49루블(2015.5)로 하락한 이후 최근에 다시 60루블 이상을 기록함.

□ 기준금리 다섯 차례 인하

- 러시아 중앙은행은 경기회복을 위해 2015년 7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
 - 높은 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경제회복을 위해 1월의 17%에서 7월의 11%로 다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하(1월 15%, 3월 14%, 5월 12.5%, 6월 11.5%, 7월 11%)
 - 러시아 중앙은행은 2014년 12월 루블화 환율이 달러 당 60루블로 상승하자 기준금리를 10.5%에서 17%로 크게 상승시킨 바 있음.

<표 1>

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 분	2011	2012	2013	2014	2015 ^f
경제성장률	4.3	3.6	1.3	0.6	-3.4
재정수지 / GDP	0.8	-0.1	-0.5	-0.5	-3.6
소비자물가상승률	8.4	5.1	6.8	7.8	14.5

자료: IMF, EIU.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한 경제구조 형성

- 러시아 경제는 에너지(원유 및 천연가스)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국제에너지 가격의 등락에 따라 경제 전반이 큰 영향을 받는 구조임.
- 에너지 부문은 러시아 GDP의 25%, 재정수입의 50% 및 전체 상품수출의

약 70%를 차지하고 있어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침.

- 세계 경제의 둔화에 따른 유가 하락으로 러시아 경제성장률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, 향후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에너지자원 의존형 경제구조에서 탈피해 산업다각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.
- 2014년 평균 유가는 2013년에 비해 9.71달러 하락한 배럴 당 98.95달러(브렌트유 기준)를 기록했으며, 2015년 10월 배럴당 40달러대로 크게 하락함.
- 단기적으로 이란 경제제재 해제, 중장기적으로 셰일가스 생산확대 등에 따른 유가 하락 요인이 있으므로 에너지 이외의 산업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.

나. 성장 잠재력

- 원유, 천연가스 등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, 새로운 매장 지역 개발 가능
- 러시아는 원유, 천연가스, 석탄, 철광석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, 세계 주요 에너지 생산의 10%를 차지함.
 - 원유(2014년 말 기준): 확인매장량(1,005억 배럴) 세계 6위(세계 전체의 6.1%), 생산량(일일 1,084만 배럴) 세계 3위
 - 천연가스(2014년 말 기준): 확인매장량(32.6조 m³) 세계 2위(세계 전체의 17.4%), 생산량(연간 5,787억 m³) 세계 2위
 - 러시아의 세계 주요 에너지 생산의 10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전 세계 원유의 12.7%, 천연가스의 16.7%, 석탄의 4.3%를 생산하고 있음.
- 북극해 대륙붕 지역에 미개발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추정
 - 러시아 정부는 바렌츠해, 카라해 등 북극해 대륙붕 지역에 석유 135억 톤, 가스 73조 m³에 달하는 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됨.
 - 2017년부터 북극해 야말 지역에서 LNG 생산을 확대하여,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과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할 계획임.
- 유라시아 대륙의 가운데에 위치한 지리적 위치를 활용하여 물류운송

부문의 발전가능성

-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극동러시아의 항만을 이용하여 동북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운송물류 루트 개발 가능성
 - 연해주와 하바롭스크의 나호트카, 블라디보스톡, 바니노 등 항만의 현대화 및 석탄 터미널, 곡물 터미널 건설을 계획하고 있음.
- 연해주 자루비노, 블라디보스톡 항 등을 중국 동북 3성의 물류운송 루트로 활용
 - 현재 길림성 정부는 자루비노 항만 인프라 건설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, 향후 자루비노 항을 아시아-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하는 물류 루트로 활용할 계획임.
 - 중국 훈춘과 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이 논의되고 있으며, 향후 포스코 그룹과 현대그룹이 개발하고 있는 훈춘 물류단지과 연해주 항만의 연계를 통한 물류 운송이 활성화될 가능성 있음.

다. 정책성과

□ 블라디보스톡 자유항, 선도개발구역을 통해 극동개발 적극추진

- 블라디보스톡을 비롯한 연해주 7개 행정구역에 자유항을 지정하고,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, 관세자유지역 운영, 외국인 무비자 제도 등을 시행할 계획
 - 푸틴 대통령은 7월 13일 자유항 지정 특별법안에 서명했으며, 10월 발효 예정임.
 - 자유항을 항만물류, 과학기술, 수산업, 관광 등 4개 부문으로 육성하고 한국, 중국, 일본으로부터 투자 유치 계획임.
- 극동러시아 지역에 경제특구 형태의 선도개발구역을 지정하여 농업, 에너지, 물류,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개발 추진
 - 2015년 2월 하바롭스크와 연해주에 1차 개발 구역 3곳을 지정하였으며, 4월에는 연해주, 캄차트카주, 아무르주, 사하공화국 등에 2차 개발구역

으로 6개 지역을 지정하였음.

□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 개최

- 극동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대규모의 국제경제포럼을 추진하며, 향후 연례 행사로 지속 추진
 - 제 1차 동방경제포럼은 2015년 9월 3~5일 개최되었으며, 러시아를 비롯하여 한국·중국·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관료, 기업인, 학자 등이 참석함.
 - 이미 러시아는 상트페테르부르크, 소치 등에서 국제경제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, 극동러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대규모 국제포럼 개최됨.
- 극동러시아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나 산업 부문에 아-태 국가들로부터 투자 유치 목적
 - 러시아 정부는 동방경제포럼을 통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선도개발구역이나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대해 투자 유치 추진 계획임.
 - 주요 투자 대상인 한국, 중국, 일본 등의 기업 투자자를 대상으로 극동러시아 지역의 주요 투자 프로젝트를 소개하였음.
 - 향후 한국, 북한, 러시아, 중국 간의 공동 프로젝트 추진 논의 계획임.

3. 대외거래

<표 2>

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11	2012	2013	2014	2015 ^f
경 상 수 지	97,274	71,282	34,801	59,462	67,330
경상수지 / GDP	5.1	3.6	1.7	3.2	4.9
상 품 수 지	196,854	191,663	181,939	189,737	155,851
수 출	515,408	527,434	523,276	497,762	370,690
수 입	-318,555	-335,771	-341,337	-308,026	-214,839
외 환 보 유 액	498,645	537,616	509,593	385,459	309,485
총 외 채 잔 액	545,150	637,826	722,914	754,714	807,314
총외채잔액 / GDP	28.7	31.4	34.5	37.5	39.5
D S R	14.8	16.5	17.4	19.9	21.4

자료: EIU, OECD.

□ 경상수지 흑자 유지

- 2014년부터 루블화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품 가격 상승과 서방으로부터의 식료품 수입 금지에 따른 수입규모 감소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음.
-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하였으나,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여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함.
- 러시아 경제 침체에 따라 무역규모는 2013년의 약 8600억 달러에서 2014년에는 약 8,000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며, 2015년에는 5,800억 달러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

□ 점차 외채 상환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

-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는 2015년 기준으로 30.8%, 월평균 수입액의 6.3개월 분이며, 점차 상환부담이 증가하고 있음.
- 단기외채잔액/외환보유액 19%(2012) → 26.4%(2013) → 29.1%(2014) → 30.08%(2015)

○ 총외채잔액은 GDP의 39.5%로 낮은 수준이나, 점차 높아지고 있음.

- 31.5%(2012) → 34.5%(2013) → 37.5%(2014) → 39.5%(2015)

□ 외환보유액 감소와 외채 잔액이 증가하고 있음

○ 외환보유액은 2012년 5,376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5년 9월 3,685억 달러로 감소

- 외환보유액은 유가하락에 따른 외환수입 감소, 환율 방어를 위한 외환 매각으로 줄어들었으며, 낮은 유가가 지속될 경우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.

Ⅲ. 정치·사회동향

1. 정치안정

□ 푸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유지

○ 2015년 6월의 푸틴의 업무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89%로 3월의 85%보다 상승하여,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권력 공고화

- 러시아 여론조사기관인 '레바다 센터'가 46개 지역의 1,6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89%가 푸틴을 지지하며, 10%만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변함.

○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,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의 제재가 국내에서는 푸틴의 업무 수행에 대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음.

□ 2015년 9월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'통합러시아당'의 압도적인 당선

○ 전체 30개 행정수반 선거가 실시되어 이 가운데 28개 지역 선거에서 통합러시아당 후보가, 키로프 지역과 아를 지역에서는 무소속 후보와 공산당 후보가 각각 당선

- 3개의 연방주체 수도 시장선거(사할린 지역의 유즈노사할린스크 시,

아무르 지역의 블라고베센스크 시, 추코트 자치구의 아나디르 시)에서 모두 통합러시아당 후보가 당선됨.

- 14개 지방의회 선거에서 통합러시아당이 모두 다수당 지위를 획득
 - 모스크바시의회 선거에서는 모두 45명의 시의원을 전원 소선거구제로 선출한 결과, 통합러시아당 28명, 무소속 10명, 공산당 5명, 자유민주당 1명, 조국당 1명이 선출됨.

2. 사회안정

□ 경제성장을 하락과 서방의 제재에 따른 경제악화로 사회불안 확대 가능성

- 에너지 가격 하락과 서방의 제재에 따라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, 이것은 실질임금 하락, 기업 인력 감원 등으로 사회에 부정적으로 작용
 -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며, 2015년의 소비자 물가 상승을 고려한 평균 임금은 2014년보다 9.3% 하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.
 - 여론 조사에 따르면, 향후 1~2년의 경제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4월의 27.6%에서 8월에는 34%로 증가했으며,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4월의 38.3%에 비해 21.2%로 하락함.
- 경제위기로 기업들이 인원 감축을 계획하고 있으며, 이는 사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
 - 러시아 최대 자동차 회사인 압토바즈(AvtoVAZ)사는 약 49,000명의 인력 가운데 15,000명을 감원할 계획이며, 이에 반대하는 노조의 시위 발생하였음.

3. 국제관계

□ 중국을 비롯한 브라질, 이란 등 주요 신흥국과의 협력 강화

- 2015년 7월 브릭스 정상회담과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담을 연달아 개최

하는 등 중국, 중앙아시아, 브라질 등 신흥국가들과의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있음.

- 2015년 6월 출범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(AIIB)의 창립회원국으로 전체 57개 국가들 가운데 중국(30.34%), 인도(26.06%) 다음으로 높은 6.66%의 지분율을 보유함.

□ EU를 비롯한 서방 국가와의 갈등과 대립 관계 지속

- EU는 2015년 6월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대러 제재를 2016년 1월까지 6개월 연장하였음.
 - 러시아는 EU 국가들에 대한 농산물 및 식품 수입금지 조치를 2016년 8월까지 1년 연장하며 맞대응
-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서의 분쟁이 계속됨에 따라 서방과의 갈등과 대립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
□ 유라시아경제연합(EAEU)의 확대

- 유라시아경제연합(EAEU: Eurasian Economic Union)을 통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.
 - 2010년 러시아, 카자흐스탄, 벨라루스 3개국으로 출범한 관세동맹을 토대로 2015년 1월 창설되었으며, 2015년 1월 아르메니아, 2015년 5월 키르기스 공화국이 가입하였음.
 - 향후 역내 무역, 에너지, 노동, 금융 시장 단일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, 가입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이 확대되고, 이를 통해 러시아의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.

IV. 국제신인도

1. 외채상환태도

□ 총외채 규모 증가 추세

- 총외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, 2015년에는 8,07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, 이는 2011년에 비해 48% 증가한 수치임.
- GDP 대비 총외채 규모의 비율은 늘어나고 있으나, GDP의 40% 미만을 기록하고 있음.

2. 국제시장평가

□ S&P와 Moody's, 러시아 신용등급 하향조정

- 2015년 1월, S&P는 러시아 경제성장률 저하, 환율 상승 등을 반영하여 신용등급을 한 단계(BBB- → BB+) 하향조정
- 2015년 Moody's는 러시아 신용등급을 1월 한 단계(Baa2 → Baa3) 하향 조정한 데 이어 2월에도 한 단계(Baa3 → Ba1) 하향조정

□ 주요 ECA 인수태도

- 미국 EXIM: 인수불가
- 영국 ECGD: 개별심사
- 독일 Hermes: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음.

<표 3>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등급		종전 평가등급	
수출입은행	C2	(2014.12)	C1	(2014. 8)
OECD	4	(2015. 1)	3	(2014. 1)
S&P	BB+/Negative	(2015. 4)	BB+/Negative	(2015.1)
Moody's	Ba1/Negative	(2015. 2)	Baa3/Negative	(2015. 1)
Fitch	BBB-/Negative	(2015. 7)	BBB-/Negative	(2015. 1)

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□ 국교수립 : 1990. 9. 30 (북한과는 1948. 10. 12)

□ 주요협정

- 무역협정(1990), 원자력협력협정(1999), 관광협정(2001), 에너지분야협력협정(2002), 항공협정(2003), 우주기술협력협정, 가스산업협정(2006), 비자협정(2010), 해상운송협정(2011), 근로활동협정(2012), 사증면제협정(2013)

<표 4> 한·러시아 교역 규모

단위: 백만 달러

구분	2012	2013	2014	주요 품목
수출	11,097	11,149	10,129	자동차, 자동차부품,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, 합성수지 등
수입	11,354	11,495	15,669	석유제품, 원유, 석탄, 천연가스 등
합계	22,451	22,644	25,798	

자료: 한국무역협회

□ 對 러시아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

- 對 러시아 교역규모는 2014년 25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, 석유제품의 수입

증가와 러시아 경제의 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에 따라 2013년에 비해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되었음.

-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, 자동차부품,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, 합성수지 등이며, 수입 품은 석유제품, 원유, 석탄, 천연가스 등임.
- o 2014년 기준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11위 수출국(전체 수출의 1.8%)이며, 8위 수입국(전체 수입의 3.1%)으로 10위 교역 상대국임.
- 수출은 전년도에 비해 9.1%가 감소하였으나,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36.3% 증가하였음.

□ 對 러시아 직접투자 현황

- o 2014년 12월 말 누계 기준 우리나라의 對 러시아 직접투자액은 22억 2,888만 달러로,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제 25위 투자대상국임.
- 업종별로는 제조업(60%), 도매 및 소매업(9.7%), 금융 및 보험업(3.6%) 등의 순서로 투자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V. 종합 의견

-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은 2013년 1.3%, 2014년의 0.6%에 이어 2015년에는 더욱 하락하여 3.5%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.
- 최근의 국제유가 급락 및 루블화 환율상승으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, 재정수지 적자 폭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, 에너지 수출을 통한 수입 감소로 인해 외환보유액도 줄어들고 있음.
 - 2015년 초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였으며, 금융·외환 시장 변동가능성이 증가함.
- 미국·EU 등 서방은 수차례에 걸친 대 러시아 경제제재로 러시아 주요 국영 은행 및 기업에 대한 금융, 에너지, 국방분야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, 러시아는 이에 대응하여 식품 수입을 금지하고, 신흥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.
 - EU는 2015년 6월 외무장관회의를 개최하여 7월말 종료예정인 대러 제재 기간을 2016년 1월까지 6개월 연장하였으며, 러시아는 미국과 EU에

부과한 농산물 및 식품 수입금지 조치를 2016년 8월까지 1년 연장됨.

- 러시아는 6월 출범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(AIIB)의 창립회원국으로 전체 57개 국가들 가운데 중국(30.34), 인도(26.06%) 다음으로 높은 지분율(6.66%)을 보유
 - 7월에는 모스크바에서 브릭스 정상회담과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담을 연달아 개최하는 등 신흥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.
- 러시아는 극동러시아 개발을 적극추진하고 있으며, 한국·중국·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로부터 투자 유치 노력
-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등 경제특구를 추진하며 물류, 식료품, 수산업, 농업 등의 발전을 추진함.
 - 2015년 9월 블라디보스톡에서 푸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·중국·일본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'동방경제포럼'을 개최하여 주요 투자 프로젝트를 설명

조영관 선임연구원(☎02-6255-5759)

E-mail: ykj@koreaexim.go.kr